

이스라엘 푸드테크 노하우 공유 신동빈 회장 스타트업 육성 주문 (롯데그룹)

‘더키친’과 협력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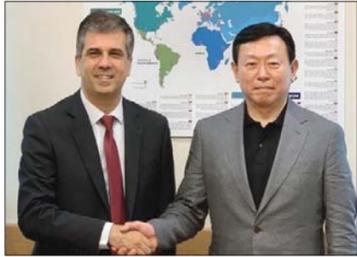
최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라 불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귀국 후 임직원에게 이스라엘 스타트업과의 사업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스라엘 출장 복귀 후 가진 내부 회의에서 현지 스타트업 육성 기업인 ‘더키친(TheKitchen)’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키친’은 이스라엘 최대 식품회사 스트라우스의 푸드테크 인큐베이터다. 롯데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롯데엑셀러레이터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더키친’이 식품 분야에 특화된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트라우스는 해당 스타트업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현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현재 식품 분야 연구와 안전검사 등에 치중하고 있는 롯데중앙연구소가 ‘더키친’



신동빈 회장이 지난달 11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럼 식품 분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이끌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며 “내부 연구도 중요하지만, 혁신적인 외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롯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연간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새로 등록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한 창업 열풍이 불고 있고, 정부도 기술 혁신 분야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그룹 차원의 신기술 도입과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에 관심을 보여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아이폰11 공개…하반기 ‘스마트폰 대전’

애플 사진·동영상 촬영 편집 기능 강화
한국 가격, 전작과 비슷하거나 더 올라

애플이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11’을 공개하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의 막이 올랐다.

애플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전 세계 미디어 대상 특별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11, 아이폰11 프로, 아이폰11 프로 맥스를 공개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는 20일 출시되며,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출시는 10월말로 예상된다.

아이폰11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편집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11은 전작 700만 화소 싱글 카메라보다 진화한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아이폰11 프로와 프로맥스 후면 카메라에는 초광각 렌즈가 추가돼 모두 3개(초광각·광각·망원)의 렌즈가 위치한다.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 촬영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는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으로 바뀌는 기능도 도입됐다. 애플은 “동영상 편집이 매우 쉬워져서 초보자도 전문가급의 동영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 칩셋인 A13 바이오닉을 탑재하면서 이미지 처리 시스템과 배터리 수명이 개선됐다. 아이폰11은 전작보다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모두 20% 빨라졌으며, 배터리 시간은 버전에 따라 최대 1시간~5시간 길어졌다.

출시가는 전작 대비 갖거나 낮아졌다. 아이폰11은 699달러(약 83만3000



애플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전 세계 미디어 대상 특별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11, 아이폰11 프로, 아이폰11 프로 맥스를 공개했다. /애플

원)부터, 아이폰11 프로는 999달러(약 119만원)부터, 아이폰11 프로 맥스가 1099달러(약 131만원)부터다. 아이폰11 프로와 아이폰11 프로 맥스는 각 전작인 아이폰XS, 아이폰XS 맥스와 가격이 같다. 아이폰11은 전작인 아이폰XR(749달러)보다 50달러 저렴해졌다.

그러나 한국 가격은 전작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올랐다. 아이폰11은 99만원부터, 아이폰11 프로는 139만원부터, 아이폰11 프로맥스는 155만원부터 시작한다. 아이폰11은 전작과 출고가 같고, 아이폰11 프로와 프로맥스는 전작인 아이폰XS(137만원부터), 아이폰XS 맥스(150만원부터)보다 최소 출고가가 다소 올랐다.

애플이 강조하는 혁신이 아쉽다는 지적도 많다. 전작과 유사한 디자인과 성능 때문이다. 폼팩터 개선과 함께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삼성·LG전자와도 비교된다. 아이폰은 5G를 지원하지 않고 4G로만 나왔다.

/구서윤 기자

갤럭시 J·A 시리즈 전략 통했다

(중저가 보급형)

모토로라 넘어 중남미 점유율 1위

삼성전자 역대 최고 점유율
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성장률
마케팅·프로모션 확대 주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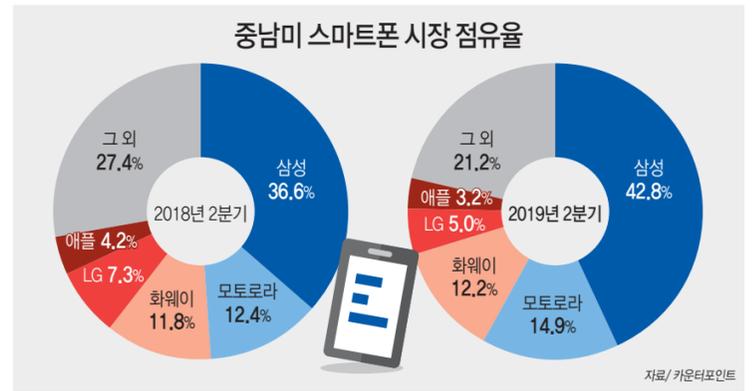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42.8%로 1위에 올랐다. 화웨이 제재와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 파브샤르마 연구원은 “삼성과 모토로라가 화웨이 제재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중남미 지역의 주요 시장에서 화웨이의 강한 공세에 부딪혔던 삼성은 이를 극복하고 선두자리를 되찾았으며, J시리즈의 가격 할인 및 A시리즈의 출시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2분기 중남미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시장이 다소 정체되면서 삼성 등 글로벌 업체 및 중국 업체들이 시



장을 점유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지 브랜드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상위 3개 브랜드인 삼성, 모토로라,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10% 성장하며 전체 시장의 71%를 차지했다.

모토로라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3위를 차지한 화웨이는 2분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모토로라를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지난 5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면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특히 6월 이후부터 그 영향이 두드러졌다.

카운터포인트는 향후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 화웨이는 중남미에서 한자릿수 점유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 내에서 생산라인이 구축되지 않는 한, 몇 달 안에 무역제재가 철회되더라도 화웨이가 지난 상반기 누렸던 성장세를 이어 가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LG는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LG는 브라질에서만 유일하게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위 5위 내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애플 또한 중남미 대부분이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브라질, 칠레, 멕시코에서 고전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명절 스트레스 날리세요”... 포스트 추석 대목

명절연휴 직후 고객들 소비증가
‘셀프 선물’ 트렌드로 자리매김

주요 백화점들이 포스트 추석 마케팅에 나선다. 전통적으로 ‘황금쇼핑주’라고 불리는 명절 연휴 직후는 내수 고객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시즌이다. 명절 중후반 극복을 위해 스스로에게 ‘셀프 선물’을 하는 트렌드와 함께 날씨가 선선해져 F/W 상품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1주일간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4.0% 신장세를 보이며 ‘황금쇼핑주’라는 것을 증명했다.

명절 전에는 주변 친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식품 관련 선물매출이 높았다면, 명절 직후에는 가족과 나를 위한 선물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피부터 패션 잡화까지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대형행사를 기획해 수요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오는 19일까지 ‘동우모피 & 유명 모피 초대전’을 진행한다. 동우모피, 진도모피, 디에스퍼, 케티랭, 호미가, 바잘디릭스 등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브랜드의 인기 모델을 50~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4층 행사장에서는 ‘탑셀러마켓팝



고객이 가을 의류를 구경하는 모습 /롯데백화점

업스토어’를 기획해 2030세대가 좋아하는 패션 잡화 브랜드를 선보인다. 모두 백화점 미입점 브랜드로 에크루, 에이취부치, 레더쥘렌, 제이지오바니 등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

◆롯데백화점에서 가을맞이 집단장을

롯데백화점은 명절 스트레스를 떨치기 위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셀프 선물’ 명품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에서는 오는 19일까지 해외 명품 대전을 진행한다. ‘지방산 안티고나 스몰백’과 ‘버버리 빈티지 체크 배너 스몰백’을 합리 미엄 아울렛 파주점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코치 스페셜 워크’ 행사를 진행해 핸드백을 정상이 대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절 연휴 직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간절기 의류 행사도 마련했다. 잠실점, 청량리점, 노원점 등 전국 13개 점포에 입점한 SPA 브랜드 ‘자라’는 오는 30일까지 가을 여성, 키즈

패션 일부 상품을 40% 가격 인하한다. 평촌점은 오는 26일까지 ‘노스페이스 에코 플리스 재킷’을 15만9000원에 판매하며, ‘네파 데이브 보아 플리스 재킷’은 9만9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아울렛은 신학기 키즈 의류, 아웃도어·스포츠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연휴가 끝난 뒤 온전히 ‘나’를 위해 투자하는 소비 심리에 착안해 지점별 대형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갤러리아명품관에서는 웰니스(Wellness) 트렌드에 맞춰 이탈리아 하이엔드 피트니스 기구 브랜드 ‘테크노집’이 19일까지 웨스트 5층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수원점은 가을 시즌룩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프랑코페라로’ ‘클럽캠 브리지’ ‘갈럭시캐주얼’이 참여하는 ‘남성 캐주얼 가을 이월 상품전’을 진행한다. 천안에 있는 센타시티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코오롱스포츠 하반기 사계절 상품대전’을 진행, 40~50% 할인된 가격에 아웃도어 인기 상품을 판매한다.

대전에 있는 타임월드에서는 19일까지 ‘쉬즈미스’ ‘BCBG’가 참여하는 ‘커리어 가을 상품전’과 ‘까르마’ ‘알레르망’ ‘소프라움’ 등 5개 침구 브랜드가 참여하는 ‘가을침구대전’이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